
 인천광역시		<b>보 도 자 료</b>		 인천의꿈* 대한민국의미래	
		배포일자	2022년 12월 22일(목) 총 2매		
담당 부서	가족다문화과	담 당 자	• 가족지원팀장 • 담당자	한선희 ☎440-2871 신정은 ☎440-2807	
사진(이미지)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## 인천시,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획득

- 가족사랑의 날 지정·운영 등 다양한 가족친화 환경조성 -  
 -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 215개사로 증가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‘가족친화인증기관 심사’에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.

‘가족친화인증’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·양육 지원, 근무 환경 개선,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·기관을 서류 심사, 직원만족도 설문조사, 현장 심사, 최종 인증 심의과정을 거쳐 선정한다.

인천시는 2014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최초 선정된 후 연장에 이어 올해 재인증을 획득했으며, 2025년까지 3년간 가족친화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한다.

시는 주 2회, 수요일과 금요일을 ‘가족 사랑의 날’로 지정해 정시 퇴근을 권장하고, 장기근속 휴가 지원, 출산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, 가족휴양시설 및 휴양지원금 제공, 직장

어린이집 운영, ‘직원 마음건강 지원’ 상담제도 운영, 힐링캠프 운영, 헬스키퍼 및 부속한의원 운영 등 다양한 가족친화사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.

또한 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관내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‘22년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했다.

이런 노력으로 (주)다담푸드, (주)이엘바이오 등 51개사의 신규 인증과 42개사의 연장·재인증 획득으로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이 지난해 총 187개사에서 215개사로 증가하는 성과도 이뤘다.

한명숙 시 가족다문화과장은 “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” 이라면서 “인천시 관내 기업 및 기관에도 가족친화제도를 정착시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” 고 말했다.